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4월 셋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로드숍 화장품,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시장공략
藥이야? 화장품이야? ... K뷰티 대열에 뛰어든 제약업계
'맞춤형 화장품' 시대 도래...업계 반응 양극화

법령 정보 13

협회 업무추진현황 18

회원사 뉴스 26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로드숍 화장품,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시장공략 ('16.4.11)

- 중저가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이 활발하며, 과거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던 로드숍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모습임
- 로드숍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로드숍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인 고급 브랜드 제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리미엄의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맞물려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링크: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01>

"면세점 경쟁력? ...중국인 겨냥한 화장품 브랜드 확보가 관건"('16.4.8)

- 8일 증권계에 따르면 글로벌투자기관인 CLSA는 한국의 호텔 및 레저 업종과 관련해 “면세점의 경우 브랜드 라인업이 비교될 것”이라며 “호텔신라-HDC신라면세점이 명품 브랜드를 바탕으로 차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CLSA는 “시내 면세점의 1인당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브랜드 선택”이라며 “HDC신라면세점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0개 중 17개)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 관련링크: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8>

화장품도 “뭉쳐야 산다”... 브랜드 집합시킨 ‘편집숍’ 대세('16.4.14)

- 국내 화장품 업계가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한데 모은 ‘뷰티 편집숍’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음
- 뷰티 편집숍은 한 회사의 여러 뷰티 제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통 채널로 꼽히며, 특히 단독 매장을 내기 어려운 론칭 초기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될 수 있음

- 관련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6431&code=11151400&cp=nv>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체들, 中 유아 시장 잇단 공략 러시 ('16.4.13)

-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유아 화장품 시장에 출사표를 잇따라 던졌음
- 한 전문가는 “현재 중국 부모들의 85% 이상이 ‘바링허우와 주링허우(8090년대에 출생한 세대)’인데 이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유아용품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온라인 상거래 전체 규모가 매년 30%씩 고속 성장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국 온라인몰 진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음

- 관련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13>

藥이야? 화장품이야? ... K뷰티 대열에 뛰어 든 제약업계('16.4.18)

- 신약 개발을 하면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
해 코스메슈티컬(치료 기능이 있는 화장품)
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병원·약국용 화장품은 이미 제약사들의 경연장
이며, 주요 제약사들은 최근 1~2년 새 기능성
화장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음

- 관련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7/2016041702140.html

'K-뷰티의 힘' ...식지않는 중국인의 韓 화장 품 사랑('16.4.14)

- 14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
은 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8.7% 늘었으며,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
출액임
- 중국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지난 6년간 연
평균 64.3% 늘었으며, 이는 프랑스(27.3%),
일본(18.3%), 미국(27.3%), 영국(51.3%)
등을 압도하는 수치임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6041409361257900>

해외 화장품, 고급 스파로 한국 공략 ('16.4.12)

- 해외 고급 스파(spa)가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으며, 뷰티 강국이 된 한국의 잠재력을 높게 본
데다가 중국인들이 각종 뷰티 제품 관련 정보를
얻는 창구가 한국이라는 점을 겨냥한 포석임
- 꼬달리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에서 유통
망이 다소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측면이 있었
는데 스파 설립을 계기로 유통망을 스파와 공
식 온라인몰로 통일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
에는 백화점 등 한국 유통채널 진출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7995&year=2016>

'맞춤형 화장품' 시대 도래...업계 반응 양극 화('16.4.12)

- 정부가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작·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 해외 소비자에게도 맞춤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
어 산업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본·인력 등의 부담과 화장품 혼합 과정의 위
험성이 크다는 걱정도 있음

- 관련링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79635>

○ 국내외 정보

※아래 자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신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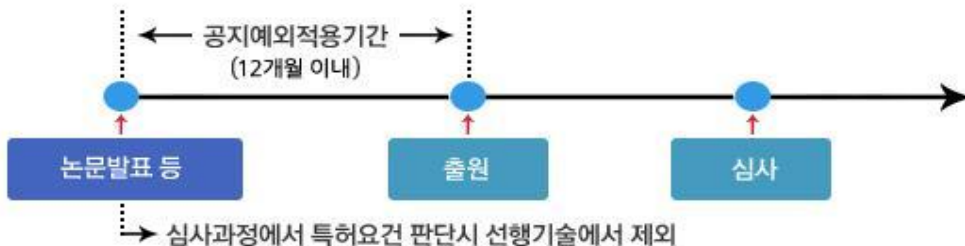
미리 공개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제1편 공지에외주장 제도 -

안녕하세요. 앞으로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특허 제도 및 화장품 분야 심사 관련 정보를 코스메틱 레포트 회원 여러분께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과학 저널에 발명을 포함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발명을 미리 공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일반 대중에게 미리 공개를 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발명을 공개하는 순간 그 공개된 발명은 특허 심사 시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하 ‘선행기술’이라 함)’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그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이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명을 미리 공개했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미리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장치가 공지에외주장 제도입니다.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지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지예외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① 발명의 권리자에 의해 공지¹⁾된 경우일 것, ② 공지된 날부터 12개월²⁾ 이내에 권리자가 출원할 것, ③ 특허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1) 2006.3.3.자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공개(출원공개, 등록공개)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

2) 출원일이 2012.3.15.자 이후인 특허출원인 경우 12개월이며, 2012.3.14. 이전인 경우에는 6개월임

(한-미FTA를 반영한 2011.12.2.자 특허법 개정에 의해 변경)

특허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2015.7.29.자 이후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서에 공지에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 등록결정을 송달 받은 후 3개월 이내(단, 설정등록 이전)에 공지에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지에외주장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수로 특허 출원서에 공지에외를 주장하지 못 했더라도 2015.7.29.자 이후 특허 출원은 공지에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공지에외주장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마다 공지에외주장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공지에외주장 제도가 유사하지만, 유럽·중국·일본은 최초 공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고, 유럽·중국은 공지에외를 인정하는 공지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및 중국은 특허출원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그 공개시점이 6개월 이내이더라도 공지에외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유예기간	자기 공지행위 인정 범위
한국	12개월	- 특허공보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 공지
미국	12개월	- 모든 국내외 공지
일본	6개월	- 특허공보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 공지
유럽	6개월	- 공식 국제 박람회 전시
중국	6개월	- 중국정부가 후원·인정한 국제 박람회 전시 - 정기 학술 또는 기술 총회에서의 공지

〈국가별 공지에외주장 제도의 유예기간 및 공지범위(2015년 WIPO³⁾ 조사 자료)〉

따라서, 해외에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지에외주장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발명의 공지 시점 및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지에외주장제도가 출원인에게 유용한 제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특허를 출원하고, 공지에외주장제도의 이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국가간 협조를 통하여 전 세계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자 UN산하의 전문기관

○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K-뷰티 열풍, 색조에 이어 향수로도 이어질까?

-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 최대 시장 -
- 중저가 향수 라인 구축 및 온라인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시장 선점 필요 -

□ 시장동향

- 2016년 2월, 세계 1위 향수원료 기업인 '지보단(Givaudan)'은 중국 장쑤성 창저우(常州)에 3420만 달러 투자해 향수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아울러, 2016년 3월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원료 전시회인 '제9회 PChi(Personal Care and Homecare Ingredients)'에서 향수원료존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중국 향수시장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중국 향수시장은 52억 위안(약 9203억 원) 규모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임. 또한 2013년 대비 약 6.4% 성장해 유아용 제품,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등에 이어 빠른 속도로 성장 중

중국 화장품 제품군별 시장규모

(단위: 십억 위안,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성장률
스킨케어	120.5	131.5	142.0	10.8
헤어용품	41.8	44.6	46.2	3.5
구강용품	24.9	27.1	28.6	5.5
색조화장품	17.6	19.2	21.0	9.4
목욕용품	17.3	18.5	19.5	5.5
유아용 제품	8.6	10.0	11.6	16.3
남성용품	8.5	9.6	10.5	8.5
향수	4.6	4.9	5.2	6.4
기타	8.1	8.6	9.1	5.8
합계	251.9	274.0	293.7	7.2

자료원: Euromonitor, KOTRA 난징 무역관

국별 향수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e)
미국	7,393.7	7,495.2	7,753.2	8,734.5
브라질	4,809.9	5,367.1	5,667.0	6,521.9
프랑스	2,535.4	2,537.9	2,501.4	2,473.4
독일	2,389.7	2,452.3	2,484.0	2,548.9
영국	2,378.0	2,431.4	2,457.2	2,675.1
사우디아라비아	1,570.3	1,825.7	2,202.4	1,469.4
중국	792.7	844.6	901.9	1,257.5
한국	375.2	396.1	415.8	468.3
일본	405.6	409.6	413.4	421.8

자료원: Euromonitor, KOTRA 난징 무역관

□ 소비동향

○ 샤넬, 디올, 마크 제이콥스 등 화장품 및 의류를 통해 기존에 중국 내 인지도를 구축한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인기가 많음. 따라서 국가별 수입현황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나며 전체 수입액의 95% 이상을 차지함.

○ 최근에는 조 말론, 아닉구딸, 크리드 등 1000위안이 넘는 최고급 니치향수(Niche Perfumes)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임.

- 월드프레스에 따르면, 니치향수는 500만 위안(약 8억8000만 원) 이상의 주택과 40만 위안(약 7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 장쑤성 난징(南京)의 경우, 2013년 9월 이탈리아의 '아쿠아 디 파르마'가 중국 내 최초로 개점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영국의 '조 말론'이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개점함.

여성향수 판매량 순위

(단위: 위안)

	상품명(브랜드)	이미지	가격대
1	미스디올 (디올)		599~1220
2	라쁘띠로브느와르우먼 (겔랑)		570~1130
3	허니 포 우먼 (마크 제이콥스)		490~890
4	자도르우먼 (디올)		870~1280
5	엔비미 우먼 (구찌)		800~1100

자료원: Sephora, KOTRA 난징 무역관

국별 향수 수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2013년	2014년	2015년
프랑스	67(60.9)	146(76.4)	127(68.3)
이탈리아	9(8.2)	17(8.9)	23 (12.4)
미국	7(6.4)	13(6.8)	21(11.3)
영국	4(3.6)	6(3.1)	8(4.3)
한국	0(0)	0(0)	1(0.5)
전체	110(100)	191(100)	186(100)

주: 괄호 안은 점유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OTRA 난징 무역관

- 주요 소비자층은 20~30대 여성이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함. 최근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와 높은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하면, 수입 전 중국 CFDA(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 안정성 검사를 7개 정도 요구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19개 정도 받아야 함. 통상 서류준비에서 1.5개월, 제품검사에서 2~7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중국에 정식 판매하기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됨.
 - 또한, 향수(HS Code 33030000)에 부과하는 10% 관세는 한중 FTA 체결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소비세 30% 및 증치세 17%가 적용돼 본국에서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음.

□ 진출전략

- 페이스샵의 '소울', 투쿨포스쿨의 '다이노플라츠' 등 국내 중저가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향수도 기존 제품의 유명세에 힘입어 타오바오(Taobao), 텐마오(Tmall) 등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중저가 향수 라인 구축 필요
 - 제품 개발 시, 중국의 중저가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게 이니스프리의 '제주 퍼퓸노트', 센틀리에의 '스프링 오프 산청'처럼 아이덴티티 정립도 동시에 필요
- 또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에서 인지도를 굳힌 후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유효
 - 국내 디자이너 향수 브랜드인 'W.Dressroom'의 경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웨이핀후(VIP.com)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음.

타오바오에서 판매 중인 향수



자료원: 타오바오(Taobao)

자료원: Euromonitor, 한국무역협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자료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2016. 4. 6 〉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티타늄디옥사이드의 사용제한” 관련 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협회에서 질의한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티타늄디옥사이드의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티타늄디옥사이드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 시 사용한다 25%로 정하고 있으며, 색소의 사용기준을 고시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별도의 사용한다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자외선차단이 아닌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제한이 없음

※ 상기 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제정에 따른 협약서 제출 안내

- 협회에서는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함
- 동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이메일(jenko@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율규약 및 협약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9호, 2016.03.1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염모제의 유효성분 상한 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염모제 사용을 도모하고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여 의약외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유효성분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품목허가·신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을 추가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6장 신설)
 - 유럽 등 국제 기준 및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염모제의 표준제조기준 유효성분을 개정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장)
 - 의약외품으로 신고 이력이 없는 염모제 표준제조기준의 11종 유효성분을 삭제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장)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5월 16일(월)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4호, 2016.4.18)

- 의약품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 보완하려고 하고자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업체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약품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관련 협회로 제출하는 기 한을 1개월에서 40일로 연장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4월 22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2호, 2016.04.18.)

- 동 고시의 목적 및 대상 등을 조문 체계로 명시하고, 각 시험방법에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등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품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및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고시의 조문체계를 목적, 세부사항의 구분, 재검토 기한 등으로 신설 및 정비(안 제1조·제2조·제3조, 별표 1부터 6까지)
 - 의약품외품각조 제2부 중 ‘복방니코틴산아미드·덱스판테놀·비오틴 액’ 등 11개 품목의 정량법 등을 개선하고, ‘2제형 산화형 염모제’ 중 에어로솔제 규격 추가 및 ‘함수이산화 규소’ 함량기준 등을 설정(안 별표 1부터 6까지)
 - 기존 허가(신고) 된 염모제에 다수 사용되는 성분 및 제제를 공정서 수재 필요함에 따라 염모제에 사용하는 성분 및 염모제 신규 제형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안 별표 3)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4월 22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1호, 2016.04.18.)

- 의약품외품 품목허가·신고 처리 절차 간소화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의약품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안전성 자료 제출 면제 성분을 의약품외품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의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안 제21조제2항제1호 아목 신설)
 -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2제형 산화형 염모제가 다른 제1제 2가지와 제2제로 구성된 품목을 허가·신고하는 경우,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 치약제, 염모제,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제 등의 의약외품 패키지 허가(신고)의 경우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허가(신고)해야 하나 염모제와 치약제에 한하여 패키지 허가(신고)를 2개 이상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분리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2년)으로 운영(안 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경미한 변경사항인 연차보고 대상 확대로 직접의 용기 . 포장의 변경, 한글 맞춤법 등 단순 오기 정정도 연차보고 가능(안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
 - 첨가제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수재된 규격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량 투입되는 첨가제의 분량을 ‘적량’으로 기재하는 기준 및 분량을 일정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 기준 신설(안 제9조제3항제2호 타목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관련)
 -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기간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관련)
 - 새로운 제형의 치약제, 염모제, 틀니세척·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 입증 자료 제출은 개별 품목 특성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II)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4월 22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4월 7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11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s-센티피드올리고펩타이드-1아마이드	s-Centipede Oligopeptide-1 Amide
2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Glyceryl Caprylate/Caprate
3	꽃생강꽃추출물	Hedychium Coronarium Flower Extract
4	난노클로롭시스 오쿨라타추출물	Nannochloropsis Oculata Extract
5	로우스위트블루베리가루	
6	아세틸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77아마이드	Acetyl sh-Oligopeptide-77 Amide
7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85	sh-Polypeptide-85
8	오죽즙	
9	일본잎갈나무껍질추출물	Larix Leptolepis Bark Extract
10	칼슘케토글루코네이트	Calcium Ketogluconate
11	페리클라에나리카르디이꽃/잎추출물	Perichlaena Richardii Flower/Leaf Extract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우리 협회는 원거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월 15일(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59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결제를 통한 접수, 수수료증 온라인 출력 등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월 교육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정 행사

◆ 2016 한-아세안 기술 협력 워크숍

● 개요

- 일 시 : 2016. 4. 25. (월) ~ 4. 26. (화), (2일간)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 공동 주최 : 대한화장품협회, 한-아세안 센터
- 목 적 : 한.아세안 정부, 업계의 교류 증진과 한류 확산을 통해 국내 화장품 회사의 아세안 수출 증진에 도움
- 아세안측 참가자: 아세안 10개 회원국에서 2명씩 총 20명

※각 국당 관련 부처 공무원(1명)과 기업인(1명)

● 프로그램(案)

① 네트워킹 만찬:

- 일정: 2016.4.25(월) 18:30 ~ 20:30
- 장소: 서울, 신라호텔, 라일락 룸(3층)
- 프로그램:

일시	시간	활동
4.25(월)	18:00-18:30	네트워킹 만찬 등록(신라호텔, 라일락 룸)
	18:30-20:30	만찬

②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시장현황에 대한 세미나:

- 일정: 2016.4.26(화) 14:00 ~ 18:20
- 장소: 서울, 신라호텔, 마로니에 룸
- 프로그램:

일시	시간	활동
4.26(화)	14:00-15:40	ASEAN Session I -아세안 회원국의 화장품 시장 소개(각 국당 20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15:40-16:10	Feedback Session I
	16:10-17:50	ASEAN Session II -아세안 회원국의 화장품 시장 소개(각 국당 20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7:50-18:20	Feedback Session

* 네트워킹 만찬 및 세미나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2016.4.12(화)까지 우리협회(담당자: 한종민, E-mail: jmhan@kcia.or.kr, Tel:070-5057-40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화장품협회·장업신문·KTR 공동 글로벌 세미나

우리협회에서는 장업신문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8일 화장품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일련의 사항들인 상표권 등록과 위생허가 취득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아래 -

- 일 시 : 2016. 4. 28.(목) 12:30~17:55

- 장 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주 최 : 대한화장품협회, 장업신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참가신청 : 장업닷컴(jangup.com) 팝업창에서 참가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회사명, 직책, 성함, 이메일, 연락처를 작성한 후 jangup@jangup.com으로 접수(사전 등록은 4월 26일 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함)

- 등록비 : 사전 등록 22,000원, 현장 등록 33,000원(VAT 포함)

※ 참가인원 선착순 450명 한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2-647672, 예금주 : (주)장업신문

- 문의 : -장업신문 02-2636-5727(총무국, 편집국), jangup@jangup.com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092-3723(뷰티산업팀), min1613@ktr.or.kr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2:30~13:30	컨퍼런스 접수 및 입장	-
13:00~13:30	인사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장업신문, 코스맥스
좌 장 : 대한화장품협회 최상숙 교육원장		
13:30~14:20	중국 위생허가 바이블 '빠름이 아닌 정확'	이정민 (KTR 상해법인 선임연구원)
14:20~15:10	2016 중국 키워드 O2O 서비스	반정민 상무 (아르카인베스트먼트)
15:10~15:25	Coffee Break	
15:25~16:15	중국 온라인 시장의 키워드와 시장 현실	아서장 (유코 회장/알리바바 그룹 산하)
16:15~17:05	중국 내 법규변화에 따른 대처법과 상표권 관리, 침해 방지 해법	Yang Yu Zhou (중국 대성법무법인 수석 변호사)
17:05~17:55	웨이상의 발전과 변혁,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다	강준철 (HKD 항저우 법인장) & 왕광 (웨이상 총연합 회장)
17:55~	명함 교환과 교류의 장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I.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6. 4. 29. (금)
- 장 소 : COEX 컨퍼런스룸 307호
- 주 최 : 대한화장품협회
- 주 제 : 지재권의 중요성 및 보호방안
- 개최목적 :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 참석대상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100여명

II.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 ~ 14:00	30분	등록
14:00 ~ 14:05	5분	인사말씀
14:05 ~ 14:45	40분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14:45 ~ 15:25	40분	위생행정허가(중국 영유아 화장품 취득)
15:25 ~ 15:40	15분	Coffee Break
15:40 ~ 16:20	40분	중국 상표 권리화 및 분쟁 대응
16:20 ~ 16:50	30분	국제 지재권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16:50 ~		폐회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무료주차권은 지원해 드리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참가신청방법

- 4월 26일(화)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참가 신청

※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Tel. 02-761-4203)

◆ 식약처) 2016 원 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 2016 원 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 일 시 : 2016. 4. 23. (토) (1일간)
- 장 소 : 인터콘티넨탈 아시아나 사이공 호텔(베트남 호치민)
* ‘코스뷰티베트남’ 박람회 기간 중 개최(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참석자 : 한국, 베트남 공무원 및 업계 관련자 약 200명 예상
-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 관 : 코이코
- 포럼 및 교류행사(만찬) 안

시 간			내 용
23일 (토)	09:30~ 10:00	‘30	등록
	10:00~ 10:30	‘30	귀빈소개, 개회사 및 축사
	10:30~ 12:00	‘90	Session 1. 아시아 화장품 분야 동반성장 ① 아시아화장품 시장동반 성장을 위한 모델 제시(‘45) ② 베트남 등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45)
	12:00~ 13:30	‘100	점심식사
	13:30~ 15:00	‘90	Session 2.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노하우 ① 베트남 시장 진출 노하우(‘45) ②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 및 특성(‘45)
	15:00~ 15:30	‘30	COFFEE BREAK
	15:30~ 17:00	‘90	Session 3. 한-베트남 화장품 규제 동향 ①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45) ② 한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45)
	17:00~ 17:30	‘30	COFFEE BREAK
	17:30~ 19:30	‘120	교류행사(만찬)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베트남 동시통역 제공

- 포럼 등록비 및 만찬 : 무료
- 참가신청 방법

다음 페이지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대표메일 (mfdscos@korea.kr)로 제출

※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서울국제 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안내

◆ 행사개요

- 일 정 : 2016. 4. 28.(목) ~ 30.(토)
- 장 소 : 서울 COEX A, B홀
- 주 최 : (주)한국국제전시, (사)한국미용산업협회
- 후 원 :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소기업청·(사)대한화장품협회 외

◆ 전시품목

- **화장품**(기초화장품,기능성화장품,색조 메이크업 등), **원료·포장**(화장품원료,기능성원료 등), **헤어·두피**(헤어케어,염모제 등), **에스테틱스파**(피부미용기기,바디용품 등), **네일 풋타투**(네일·풋 케어,네일·풋 아트 등), **조향제품**(향수,디퓨저 등), **특별기획관**(패션악세사리,이너뷰티 등)

○ 「2016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 발행 안내

-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수출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원료생산·취급자를 비롯하여 화장품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2016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를 발행하였습니다.
- 디렉토리 국문판은 인쇄물로 발행되었으며, 디렉토리 영문판은 해외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웹사이트(<http://directory.kcia.or.kr>)로 구축하였으니 동 자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각 책자의 세부 목차 확인과 구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대한화장품협회’ → ‘발간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문의 : 070-7858-0564)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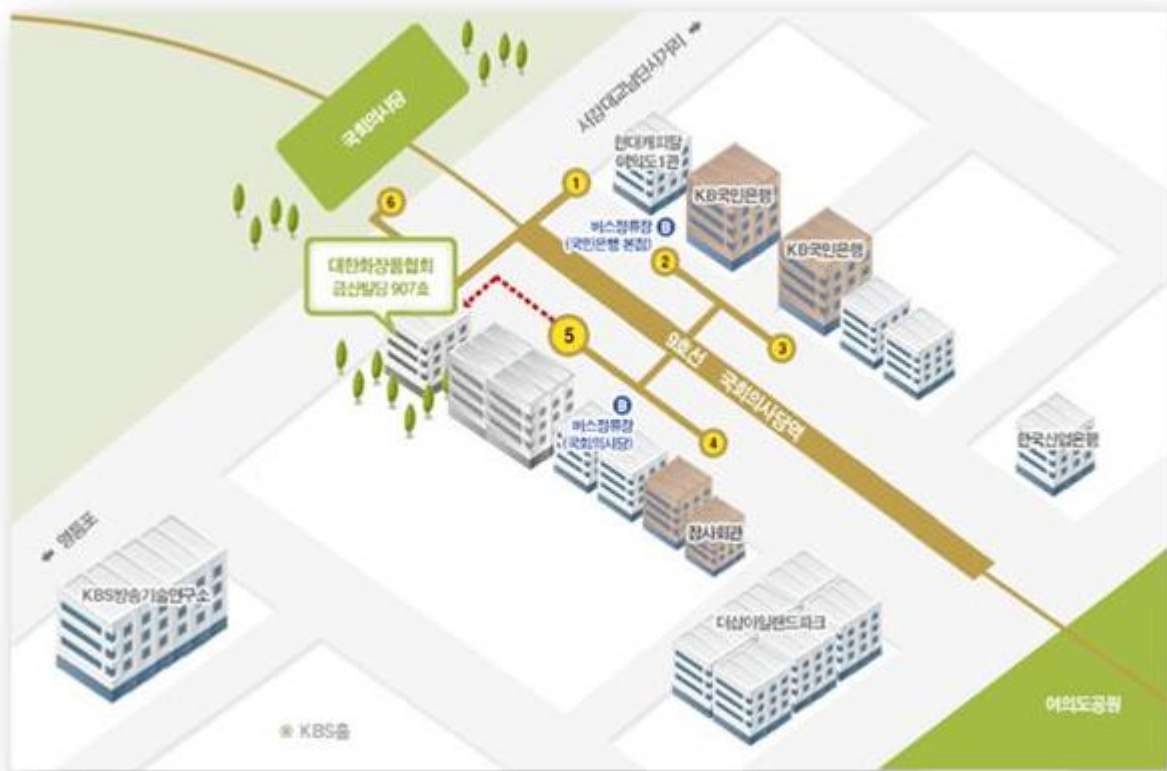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엔프라니(주)

창립 15주년(2001. 4. 19)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